내가 본 2004, '처음과 끝'

책 속으로 도피한 나의 한해를 마감하며

글 | 전수정(북 블러거)

찬바람이 매섭다. 유난히도 검게 물든 하늘, 늘 그렇듯 오늘도 겨드랑이에 책 한 권을 끼고는 집으로 향한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책가방을 메고 그렇게 5년째 교정을 거니는 느낌은 뭐랄까. 대학이라는 울타리 내에 머물 때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학교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 싫지만은 않다. 이전만 하지 못한 마음 속 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나는 모두가 바삐 걷는 이 사회에서 조금 더 천천히 걷기 위해 책을 집어 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대학교 1학년, 처음 학교 도서관을 찾았을 때만 해도 난 책과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오로지 성적을 올려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지난날이었기에, 책 읽는 것을 사치인 듯 멀리했었다. 수능시험 언어영역에 출제될지도 모른다는 일념으로 읽었던 몇몇 소설들로부터 재미를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기초 지식 부족. 이미 알고 있어야만 했던 것들을 나는 알지 못했고, 뜬구름 잡는 심정으로 무턱대고 사회과학 서가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꺼내 들었던 것이 지난 2000년 가을이었다.

단지 종이 안에 갇혀 있는 글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책은 내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말해 주었다. 픽션이라고는 하지만 현실과 닮은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는 눈물과 감동이 있었다. 그 이야기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순간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마냥 느끼기 시작했다. 이는 비단 소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는 몇몇 수필집들, 심지어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글들에 이르기까지, 책들은 각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결국 그 이야기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독서는 즐거움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부족한 지식이 발목을 붙잡는 그 순간에도 나는 고집스레 책장을 부여잡을 수 있었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인문, 사회과학 서적들에 대한 작은 애착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책을 나의 친구로 만들었고, 어느 순간부턴가 일종의 강박관념 마냥 책을 읽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부족함이라는 캄캄함으로부터 벗어나고픈, 무언가 알아야만 한다는…. 이렇게 읽어 나간 책들을 통해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나름대로의 관점을 만들어나갔다. 세상이 내게 쥐어주는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고, 때로는 '집착' 마냥 슬퍼하면서, 이전까지는 그저 무의미하게 존재하던 세상을 텍스트 삼아 읽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4년 끝자락, 여전히 나는 학교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어느 발부터 사회에 디뎌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 혹자는 이런 나를 두고 '책 속으로 도피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처세술과 자기관리 등 성공을 위한 서적들이 쉽사리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오늘날, 남들이 읽지 않는 인문, 사회과학 서적들만을 들추는 나의 행동이 회피로 보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이며, 이는 내가 아직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뭇가지들도 잎을 떨구는 쓸쓸한 계절, 가슴에 안고 걸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기에, 올해 나는 행복했다고 말한다.